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8
----------	------

2017년 2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2. 6. 김기만 의원 외 19명
- 나. 회부일자 : 2017. 2. 7.
-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2017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만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2013.11.26. ~ 2014.5.25.)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 현재 개최가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2018.2.9.~2.25.)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2018.3.9.~3.18.) 등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로 서울에서 동계스포츠의 붐을 일으켜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95여 개국의 5만여명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의 대규모 관광 특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2천만 서울관광시대' 조기 달성하고자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특수목적 관광(SIT : Special Interest Tour)인 '스포츠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개요

-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이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해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 관광 특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2천만 서울관광시대’를 조기 달성코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 대회로서,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하·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올림픽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경제·문화·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가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동계스포츠의 저변이 넓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동계스포츠의 대중화와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기 시설과 인프라 건설을 통한 소득과 고용증대, 대회기간 중 관광수입과 이에 따른 기타 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또한 올림픽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국가브랜드 향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에 국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정부지원과 공공기관 등의 후원·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붐업 조성 및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관련 경기, 행사,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참고자료1).
 -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과 관광수요창출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 관광마케팅 협약(참고자료2)을 맺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처럼 범국가적·전세계적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와 협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동계스포츠의 내실화와 대중화,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1)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23개 종목, 198명)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동계 종목은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빙상스피드(5명), 빙상쇼트트랙(8명), 컬링(6명) 등 3종목에서 13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휠체어컬링 1종목에서 6명의 선수가 활동 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유치성과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고, 서울 소속 메달리스트 출현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컬링팀이 2016년 8월에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물리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정논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일가가 준비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올림픽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개최가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2018.2.9. ~ 2.25.)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2018.3.9. ~ 3.18.) 등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서울에서 동계스포츠의 붐을 일으켜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95여 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대규모 관광 특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 구성을 결의한다.

2017. 2.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